



광주 문화수도 조성사업의 핵심기능을 수행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4일 현재 35%의 공정을 기록하며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주요 시설물이 지하 4개층 지상 2개층 안에 들어갈게 되는 문화전당은 오는 2014년 말 완공될 예정이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아시아 문화개발원 출범
예술극장 감독 선임
문화창조원 전시 주제 확정
문화 얼라이언스 연대 추진

문화수도가 갖춰져 간다

콘텐츠 개발 잇단 착수...기반 구축 본격화

광주를 아시아 문화수도로 조성하기 위한 문화콘텐츠 개발사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종이와 비단, 쌀 등 아시아 고유의 문화콘텐츠를 개발·유통할 아시아문화개발원이 문을 연데 이어 최근엔 아시아예술극장 예술감독이 선임되고, 대구·경북·전남과 공동으로 영·호남 문화콘텐츠 발굴 사업이 진행되는 등 문화수도의 내실을 탄탄하게 다질 수 있는 기반구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지난해 12월 28일 동구 무등빌딩에서 아시아문화콘텐츠 제작 및 유통을 전담할 아시아문화개발원을 출범시켰다. 아시아 문화의 창의성과 다양성 개발을 통한 문화 콘텐츠 제작·유통, 그리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및 프로

그램 등에 대한 연구·개발 등을 담당할 아시아문화개발원 원장에는 백남준아트센터 초대관장을 지낸 이영철 계원대 교수가 임명됐다.

추진단은 또 지난달 12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5개 주요시설 가운데 하나인 아시아 예술극장의 예술감독으로 영·호남 문화콘텐츠 발굴 사업이 진행되는 등 문화수도의 내실을 탄탄하게 다질 수 있는 기반구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지난해 12월 28일 동구 무등빌딩에서 아시아문화콘텐츠 제작 및 유통을 전담할 아시아문화개발원을 출범시켰다. 아시아 문화의 창의성과 다양성 개발을 통한 문화 콘텐츠 제작·유통, 그리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및 프로

문화전당 내 문화창조원과 복합전시관, 어린이문화원 등의 전시 콘텐츠 개발을 위한 전시감독도 올 하반기에는 선임작업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특히 문화창조원은 개관전시 주제로 '길(Road)'을 선정해 종이의 길, 비단의 길, 쌀의 길 등 아시아 공통의 테마를 콘텐츠화한 전시를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아시아문화정보원에서는 스토리, 조형·상징, 의례·공연, 의식주, 이주·정착 등 5가지 영역의 아시아 문화자원을 조사·수집, 콘텐츠로 만들게 되며 아시아 16개국의 전통 춤, 11개국의 전통음악을 한 데 모은 아카이브도 구축할 계획이다.

광주 시도 대구·경북·전남도와 공동으로 영·호남 문화콘텐츠를 발굴, 상생 발전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문화 얼라이언스(Alliance) 사업을 개발, 국부해양부가 추진하는 '내륙권 발전 시범사업'에 공모했다. 광주시는 전문가 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이달 말 시범사업지로 선정되면 문화·학술·인적교류를 통해 영·호남지역의 공동 문화콘텐츠를 개발·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홍형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학교설립 58주년(1954~2012)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 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이이남씨 작품 '조춘도-사계2'

후진타오 주주석 부인이 구입

후진타오(胡锦涛·70) 중국 국가주석의 부인 류영칭(劉永清·72) 여사가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기간 중 한국을 방문, 담양 출신 미디어 아티스트 이이남씨의 작품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류 여사는 후 주석과 지난 25일 한국에 도착한 뒤 3박 4일 일정으로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가 주관하는 국립중앙박물관 방문 및 만찬, 청와대 상춘재 오찬관 영빈관 문화행사 등에 참석한 뒤 귀국했다.

류 여사는 한국에서의 일정을 소화하는 도중 전시된 이이남씨의 작품 '조춘도-사계 2'(Early Spring



Drawing-Four Seasons 2)를 보고 선물 구입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구입 가격은 비밀에 부쳐지고 있다.

'조춘도-사계2(사진)'는 중국 복숭아시대 화가가 그린 '조춘도'를 현대적 감흥과 관점으로 재해석한 것으로, 중국의 4계절 속에 현재 일어나는 기후 변화를 집어넣어 보다 극적이고도 몽환적 분위기가 엿보이는 6본 59초짜리 작품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후보 단일화·무소속 연대 막판 변수

나주·화순 배기운-전종덕 합의...고흥·보성 협상



4·11 총선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후보 간 단일화와 무소속 연대 등 합종연횡이 막판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각 후보들은 선거운동기간 마지막 주말과 휴일이 낀 이번 주가 승패의 최대 이달 말 시범사업지로 선정되면 문화·학술·인적교류를 통해 영·호남지역의 공동 문화콘텐츠를 개발·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홍형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과 함께 '후보 단일화'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현역 국회의원의 무소속 최인기 후보와 배기운 후보가 팽팽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시점에서 이뤄진 후보 단일화라는 점에서 나주·화순 총선 판도가 선거 막판 크게 요동을 칠 것으로 보인다.

전 후보 측은 "이번 단일화는 한명씩 대표가 전국적 야권연대의 승리를 위해 통합진보당 중앙당에 후보 단일화를 제안해왔고, 중앙당이 이를 수용해줄 것을 후보에게 제안해왔음에 따라 지역의 구태정치 심판을 위해 전격 수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민주당 경선에서 탈락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한 현역 국회의원의 연대 움직임도 시작됐다.

김재균 광주 북구 을 후보와 최인

기 나주·화순 후보, 조영택 광주 서구 갑 후보는 무소속 연대를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오는 6일 기자회견을 열고 무소속 연대를 밝힐 예정이었지만, 조영택 후보가 이를 거부하면서 무산됐다. 김재균 후보 측은 최인기 후보와의 연대 가능성을 남겨두고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흥·보성 선거구도 선두를 달리고 있는 민주당 김승남 후보를 따라 잡기 위해 무소속 신중식 후보와 김철근 후보 간의 후보 단일화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두 후보는 단일화 추진에 잠정 합의하고, 각 선거캠프의 실무진이 구체적인 방법을 협의 중이다. 김철근 후보는 "잘못된 공천을 바로잡아야 하며, 자치단체장의 선거개입이 도를 지나쳤다는데 두 후보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단일화를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나주혁신도시는 노란색...고유색 갖는다 국토부 색채선정 지침

지중해를 배경으로 하얀 외벽과 파란 문의 집들이 모여있는 그리스 산토리니섬이나 붉은 지붕의 독일 하이델베르크처럼 광주·전남혁신도시도 통일된 자기 색깔을 갖는다.

국토해양부는 4일 전국 9개 혁신도시 시범 특성에 따라 주변과 조화되는 건축물 색채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한 '혁신도시 건축물 색채선정 지침'을 발표했다.

해당 혁신도시에서는 이렇게 제시

된 범주 안에서 자율적으로 색채를 선정해 적용하면 된다.

한편 대구는 빨간색·파란색, 울산은 노란색·빨간색, 강원은 녹색·노란색, 충북은 노란색·녹색·빨간색, 전북은 황금색·파란색·빨간색, 경북은 노란색·빨간, 경남은 노란색·빨간색, 제주는 하얀색·검은색 범주의 색이 고유 색깔로 제시됐다.

/오광기기자 kroh@kwangju.co.kr

맛과 멋이 한상 가득
2012전북방문의 해
VISIT JEONBUK 2012, KOREA

풍(豊)·화(和)·경(敬)을 갖춘
동북아 경제중심 명동도시 군산

2012 Gunsan Saemangeum Festival

군산새만금축제

기간 2012년 4.13(금) ~ 4.22(일) [10일간]
장소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은파호수공원, 월명종합경기장, 해망동 수산물센터 등

- 거리퍼레이드 : 2012. 4.13(금) 16:45 ~ 18:30
금광초교 ~ 구시청4거리 ~ 근대역사박물관
- 개막식 :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주차장 18:40

- 군산수산물축제 : 4.13(금) ~ 19(목)/해망동 수산물센터 일원
- 군산 구불길 전국 대축제 : 4.20(금) ~ 22(일)/금강철새조망대 및 구불길 일원
- 군산시 복지·평생학습 EXPO : 4.20(금) ~ 21(토)/군산근대역사박물관 일원
-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대회 : 4.28(토) 08:00/군산월명종합경기장
- 평당보리축제 : 5. 2(수) ~ 6(일)/미성동 주민자치센터 앞

http://www.gunsan.go.kr/ ☎ 관광진흥과 450-4554